



받아들임

정은/가족치료 연구소장 www.tafamily.net

말 은 가을밤 하늘엔 무수한 별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다.

해가 있는 자리, 달이 있는 자리, 별이 있는 자리. 그러나 자리다툼없이 조용해 보인다.

눈을 돌려 가을물든 산하를 보아도 자리다툼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바다가 강물을 가려서 받지 않으며 강물은 시냇물을 차별하지 않으며 시냇물 또한 청탁을 가리지 않고 개천의 물을 받아 들인다. 받아들임의 미학...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기를 게을리 한다.

도무지 실 여가를 주지 않는 어머니를 피해 유치원 다니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품을 찾는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나 학원 보내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놀고 싶단 말이예요.' 젊은 엄마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면서 시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도 받아 넘겨버린다.

자신의 목적과 무관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여유 없는 모습이다. 파김치가 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 아들의 속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엄마들은 학문(學文: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학문(學問:단순히 사물을 배우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넉넉한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을 주고받는다. 속이 깊은 옛 어머니들은 아이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다. 아이들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장난감에 혼을 입혀서 소꿉놀이를 하며 제 피붙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싫증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요즈음 어린아이들에게는 도무지 귀함이 없다. 가게에 가면 너무나 많은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장난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얻게 되면 이미 옛것은 천덕꾸러기가 된다.

이렇듯 학원에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장난감 가게에 진열된 많은 것들을 구경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교육은 어머니 품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울곧은 정성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깨달은 한 사람의 느낌은 가족, 친구, 사회, 세상속으로 잔잔하게 퍼져 나가며 행복한 기운으로 꿈꿈 얼어붙어 있는 시베리아 동토에 아름다운 봄을 가져다 주리라.

가득하면서도 빈 여백들이 넉넉한 가을의 자연앞에서 마음을 나누는 지혜를 키워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PPFK

